

## 자4-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(Nebulizer Treatment of Lower Airway) 인정기준

- 다음-

1.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기,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 치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동 질환 이외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인정함

- 아래-

가. 인정대상: 응급실 또는 입원진료 중인 환자에 한하며, 정량식 또는 분말흡입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“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곤란( $PaO_2 < 60\text{mmHg}$ )” 이 있거나 “하기도 경련에 의한 천명(wheezing)” 이 확인되는 경우

나. 인정기: 급성기 일주일 이내

2. 위1. 이외에도 객담배출이 곤란하여 전신투여(경구 또는 주사)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직접 하기도에 국소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실 또는 입원진료 중인 환자에 한하여 급성기에 사례별로 인정함

- (1)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상병명 또는 부합되는 증상등이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
- (2) 인정기간이 대부분 1 주일 이내이므로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- (3) 처치행위와 함께 매칭되는 약물이 누락없이 처방되어야 함.

(주) 특히 덜어 사용하는 ventolin 20ml 병입 제품의 경우, 허가기준/용량을 숙지하여 의료기관 구입물량 대비 사용량을 일치시켜야 합니다. 소아체중에 맞추어 0.5ml 이하로 사용하더라도 식약처 허가기준이 (비현실적이긴 하나) 0.5ml 사용하도록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20ml 병입제품 1 병의 경우, 40 명 이상 처방한 기록이 있으면 허위/부당청구로 의심되어 삭감/환수/현지조사를 당하게 됩니다.

(관련기사 <http://www.medigatenews.com/news/print/2689320836> )

### 심사평가원 심사 사례

#### 남/9개월

- 청구 상병명: 상세불명의 급성 세기관지염

- 주요 청구내역

자4-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[1일당] 1\*1\*14

222 아트로벤트흡입액유디비(프롬화이프라트로피움일수화물) 1\*1\*14

#### 심의결과

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4세의 이하의 연령으로 천명, 건성수포음 등 증상이 확인되나 통상적으로 바이러스성 질환인 급성 세기관지염의 발병기간은 2주를 넘지 않고 7일 정도 경과하면 호전되는 점을 감안하여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및 약제는 7회 인정함

### 남/13 세

- 청구 상병명: 재발의 언급이 없는 급성 상악동염, 상세불명의 천식
- 주요 청구내역  
자 4-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[1 일당] 1\*1\*4  
222 벤토린흡입액(살부타몰황산염) 1\*1\*4

### 심의결과

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천식 및 급성 세기관지염 상병을 뒷받침할만한 환자의 증상 및 이학적 검사소견 등 객관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및 약제는 인정하지 아니함

### 여/39 세

- 청구 상병명: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
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 
기타 알레르기비염, 상세불명의 천식
- 주요 청구내역  
자 4-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[1 일당] 1\*1\*1  
222 풀미칸분무용현탁액(미분화부데소니드) 1\*1\*1
- 의무기록검토  
C.C: 아직 안났고 기침-> 잠자기 힘들고 숨차다  
가래-> 거품많고 whitish/ 목소리 변함, 목이 아파요

### 심의결과

상세불명의 천식 부상병 하에 풀미칸분무용현탁액(미분화부데소니드)으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한 사례로, 제출된 진료기록부 검토결과, 천식상병을 뒷받침할만한 진료기록이 미비하므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및 약제는 인정하지 아니함

### 남/26 세

- 청구 상병명: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
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 
상세불명의 천식
- 주요 청구내역  
자 4-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[1 일당] 1\*1\*1
- 의무기록검토  
현재 병력: 콧물, 재채기, 기침 약간, 새벽에 약간 색색 소리남, 천식 의심됨

### 심의결과

제출된 진료기록부 검토결과, 천식 상병 및 증상 기재는 되어 있으나, 하기도 증기흡입치료에 사용되는 약제 청구가 없으므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에 해당하지 않아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